

 <b>관세청</b> <a href="http://www.customs.go.kr">http://www.customs.go.kr</a>		<b>보도참고자료</b>		
<b>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				
배포일시	2018. 12. 28.(금)	담당부서	관세청 통관기획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	
담당과장	이종욱 과장(042-481-7810) 조익노 과장(044-203-4040)	담당자	김용익 사무관(042-481-7845) 홍석민 사무관(044-203-4042)	

**사상 최초 연간 수출 6,000억 달러 돌파**  
 - 수출 6,000억 달러 시대 닷 올라 -

1. 수출 6,000억 달러 달성 동향

□ 관세청.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2월 28일(금) 11시 12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**연간 누계 수출액이 6,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.**

- 이는 '48년 수출이 시작된 이래 **70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,**
- '11년 수출 5,000억 달러 달성 이후, **7년만에 괄목할 성장**을 통해 **사상 최초 6,000억 달러 및 역대 최대 수출 실적**을 경신하였다.
- \* 역대 수출액(억 달러) : (1위) 5,737('17년), (2위) 5,727('14년), (3위) 5,596('13년)

< 금액별 수출 최초 달성 기록 >

구 분	1천억불	2천억불	3천억불	4천억불	5천억불	6천억불
달성 연도	'95년	'04년	'06년	'08년	'11년	'18년(11:12 기준)
수출액(억불)	1,251	2,538	3,255	4,220	5,552	6,000

2. 주요 특징 및 의의

< 수출 강국 위상 강화 : 세계 7번째 수출 6,000억 달러 달성 >

□ 우리나라는 미국.독일.중국.일본.네덜란드.프랑스에 이어 **세계 7번째로 수출 6,0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.**

- \* 주요국 수출 6천억불 달성시점 : 美('96), 獨('02), 中('05), 日('06), 네('08), 佛('08)
- \* 세계 수출순위('18.1~9월, WTO) : ①中, ②美, ③獨, ④日, ⑤네, ⑥韓

○ 금년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**수출비중도 역대 최고치(3.4%)를 기록** 중으로, **세계 6위 수출국**으로서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.

- \* 우리나라 수출순위.비중(WTO) : ('17년) 6위(3.2%) → ('18.1~9월) 6위(3.4%)

< 수출 6천억불 달성 시기 >



< 세계 수출 순위('17년, 억불) >



< 고속 성장세 : '48년 → '17년까지 연평균 16.1%, 3만배 이상 성장 >

□ 우리나라 수출은 최초 수출실적이 기록된 '48년부터 '17년까지 **연평균 16.1%로 급성장**하여, **69년간 약 3만배 이상 성장**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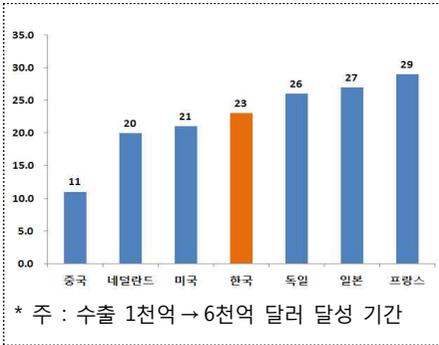
- \* ('48년) 19백만불 → ('17년) 5,737억불 (연평균 약 16.1% 증가로, 30,194배 성장)

○ 다른 나라와 비교시에도, 1천억 → 6천억 달러까지 **세계 4번째**(23년 소요), 2천억 → 6천억 달러까지 **세계 3번째**(14년 소요)로 **빠른 기록**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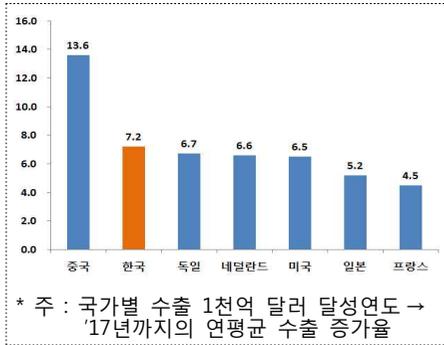
○ 또한, 국가별 수출 1천억 달러 달성 연도부터 '17년까지 **연평균 수출 증가율** 비교시, **중국 제외 가장 높은 증가율**을 시현하고 있다.

- \* 주요국 연평균 수출 증가율(1천억 달러 달성연도 → '17년) : (중국) 13.6, (**한국**) **7.2**, (독일) 6.7, (네덜란드) 6.6, (미국) 6.5, (일본) 5.2, (프랑스) 4.5

< 주요국 수출 6천억 달러 소요연수 >



< 주요국 연평균 수출 증가율(%) >



< 질적 차원에서도 도약 : 수출 품목·시장 다변화 진전 등 >

□ 올해 우리나라 수출 선전은 반도체, 일반기계,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 지속 및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신산업, 유망소비재 등 미래 수출 동력의 활약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\* (반도체) 세계 최초 단일부품 기준 1,000억 달러, (기계, 석유화학) 최초 500억 달러  
\* 수출 증감률('18.1~11월, %) : (신산업) +9.7, (화장품) +29.9, (의약품) +20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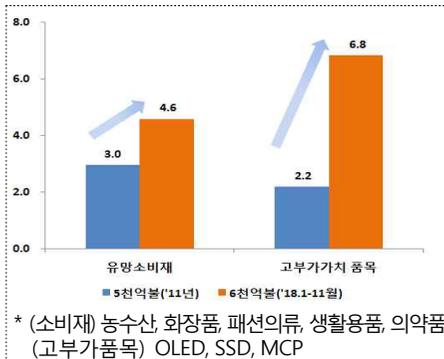
○ 특히, 신산업, 유망소비재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, 수출 5,000억 달러를 처음 기록한 '11년과 비교시, 13대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감소('11년 82.1% → '18.1~11월 77.7%)하였다.

\* (신산업) '16년(통계작성 시작)부터 3년 연속 증가, (소비재) '10년부터 9년 연속 증가

< 1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(%) >



< 유망소비재, 고부가가치품목 수출비중(%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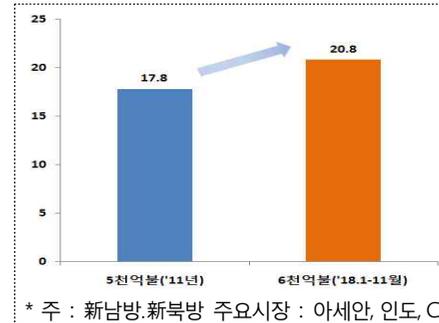


□ 또한, 지역별 고른 증가세(10대 주요지역 중 8개 지역 증가)와 **新남방, 新북방 지역 수출 활성화** 등도 금년도 수출 호조세의 주요 요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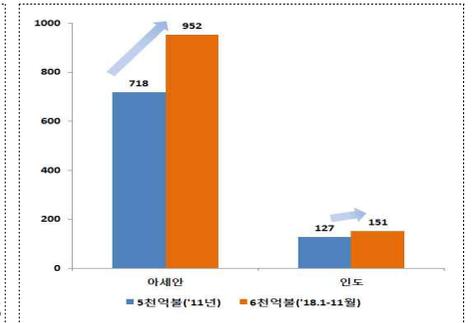
\* 주요지역 수출 증가율('18.1~11월, %) : (중국) 17.2, (CIS) 15.8, (일본) 15.6, (아세안) 5.5  
\* 아세안·인도(신남방)·CIS(신북방) 수출 역대 최대실적('18.1~11월, 1,160억불) 달성

○ 특히, 아세안·인도·CIS 등 **新남방, 新북방 주요지역의 수출비중이 '11년과 비교시 증가('11년 17.8% → '18.1~11월 20.8%)**하는 등 **신흥시장의 수출 기여 부분이 증가하고** 있는 추세이다.

< 新남방, 新북방 수출비중(%) >



< 주요 신흥시장 수출실적(억불) >



### 3. 향후 계획

□ 내년도 수출여건은 주요국 경제 성장을 둔화, 미·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**낙관치 않은 상황이나,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2년 연속 수출 6,000억 달러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**이다.

○ 먼저, 미·중 무역분쟁 및 미국 자동차 제232조 등 **통상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** 하는 한편,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등을 활용한 **新남방시장 개척** 등에도 **집중할 계획**이다.

○ 또한, **수출 품목·시장 다변화, 중소·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, 수출의 포용적 성장 선도 등 수출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**하는 한편,

○ **주력산업별 맞춤형 고도화**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**「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」**(12.18일 발표) 등을 통해 **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**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.

**OPEN**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관세청 김용익 사무관(☎ 042-481-7845), 산업통상자원부 홍석민 사무관(☎ 044-203-40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